동국대 '청년불자 양성' 중점 추진한다

건학위원회 상임위 회의서 발표
'청년불자 양성' 新핵심사업 대두
장학제도 등 건학이념교육 필수화
재학생에게 '스며드는 불교' 지향
매월 11일 '합장데이' 합장 생활화
'상월결사 108원력문' 대중 보급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는 4월 18일 교내 건학위원회 회의실에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가 '청년불자 양성'을 새로운 5대 핵심사업으로 지정하고 청년불자 발굴과 육성 사업에 나선다. 이를 위해 매월 11일을 '합장 데이'로 지정하고 동국인 일상 인사법으로 '합장 인사'를 생활화하기로 했다. 또한 상월결사 인도순례 회향법회에서 공개된 '상월결사 108원력문'의 보급과 대중화도 추진된다.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는 4월 18일 교내 건학위원회 회의실에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올해 주요 사업 계획을 발표·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가 추진하는 △학생장학 및 취업 △제2병원건립 △디지털대장경 구축 △중등·고등교육기관 통합 △청년불자 양성 등 5대 핵심사업 추진 상황이 소개됐다. 특히, 건학위원회는 5대 핵심사업 중 사이버대학 설립을 '청년불자 양성'으로 변경하고 청년불자 발굴과 육성에 매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동국대 건학위원회는 동감·동화·동참 등 대학산하 학생단체와 동국 건학 장학·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내리사랑 장학 등 장학생 선발 시 불교 소양 평가를 도입하고 건학이념교육이 필수로 이뤄질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건학이념교육은 불교교리 교육과 습의(신행), 사찰체험으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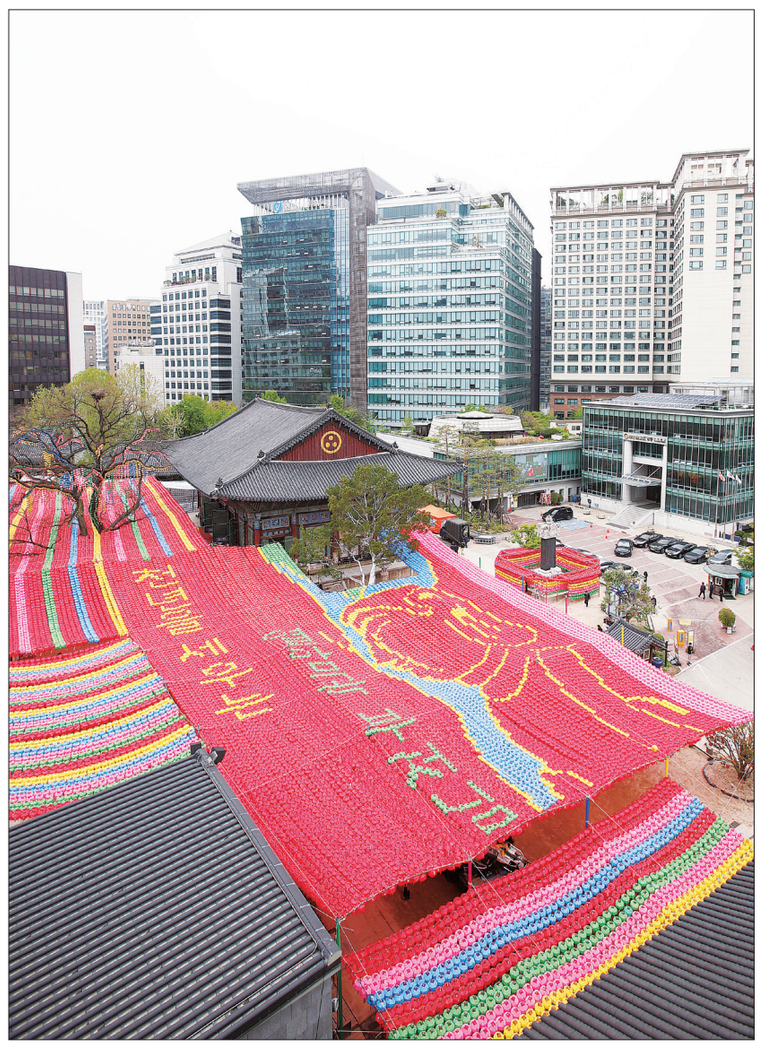
또한 일상불교 확산을 통한 청년불자 양성을 위해서는 동국대 재학생들의 삶에 불교가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돼 눈길을 끈다. 동국대 건학위원회는 합장의 생활화를 위해 '합장'을 동국대 공식 일상 인사법으로 공포하고 매월 11일을 '합장데이'로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공양기도문 생활화를 위해서는 교내 모든 공양 장소에 '공양기도문'을 게시하고 음원 제작·홍보, 동참 이벤트를 전개한다. 〈부처님생애〉, 〈불교성전〉에 대한 독서 릴레이와 소감문 공모전도 추진된다.

이와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동국대 서울캠퍼스와 WISE캠퍼스, 의료원, DUICA, 산하학교 등 기관별 건학위원회들의 중점 사업들이 소개됐다. 특히, 동국대 서울캠퍼스는 일상불교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상월결사 108원력문' 보급을 추진하기로 해 눈길을 끌었다.

'상월결사 108원력문'은 지난 3월 23일 조계사에서 봉행된 상월결사 인도순례 회향법회에서 공개됐으며, 불교의 근본 가르침과 한국불교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실천 지침이다.

윤재웅 동국대 서울캠퍼스 총장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상월결사 108원력문 보급 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겠다"면서 "생활 속에서 108원력문을 쉽게 접하고 내재화할 수 있도록 시각 자료화하고 108배 정진에 활용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동국대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건학위원회 고문 자승 스님께서 인도를 43일 동안 1167km를 걸었던 목적은 스러져가는 불교를 중흥시키기 위함이었다"면서 "이런 상태로는 50년 후에는 불교는 소멸된다는 위기의식을 상기하고 불교 중흥을 위해 대학생과 청년불자 발굴과 육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사는 불기2567년 부처님오신날 도량등 표어를 '천년을 세우는 열암곡 부처님'으로 정했다. '5㎝의 기적'으로 불리는 경주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바로 모시는 종단 불사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조계사 대중의 결의가 느껴진다.

불기2567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열기 'UP'

4월 26일 광화문광장서 점등식
올해엔 국보 '수마노탑' 형상화
5월 20일 어울림마당, 연등행렬

불기2567년 부처님오신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적으로 봉축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진우, 이하 봉축위)는 불기2567(2023)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표어로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Peace of the Mind, World of the Buddha)'을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봉축표어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은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불안한 일상을 이겨내 온 국민들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고 모두가 평등하게 공존하는 부처님 세상이 되기를 염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올해 부처님오신날 봉축시즌을 본격적으로 알리는 광화문광장 봉축점등식은 오는 4월 26일 오후 7시에 열린다. 올해 광화문광장을 한달여 간 빛낼 봉축장엄등은 지난 2020년 국보로 지정된 강원도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을 형상화했다. 크기는 가로 11m 세로 11m, 높이 20m(탑 18m, 좌대 2m)로 국적, 인종, 연령의 차별 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수마노탑을 탑돌이를 하며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았다.

주요 연등회 행사일정도 확정됐다. 4월 29일 오후 2시에는 조계사와 인사동 일원에서 호기놀이가 진행된다. 매년 청계천에서 열렸던 전통등전시회는 올해부터 광화문광장으로 자리를 옮겨서 봉축장엄등과 함께 서울을 장엄한다. 전시회는 5월 11일부터 5월 28일까지 열린다.

연등회 어울림마당과 연등행렬, 회향한마당은 5월 20일 동국대와 동대문, 종로 일원에서 개최한다. 전통문화마당과 연등놀이는 5월 21일 조계사 일원에서 열린다.

이와 함께 전국 사찰들은 본격적인 봉축 준비에 들어갔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4월 17일 경내 도량등 점등식을 봉행했다. 올해 조계사의 봉축도량등 메시지는 '천년을 세우는 열암곡 부처님'으로 조계종 37대 집행부의 주요 종책인 열암곡 마애불 바로 모시기 불사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신성민 기자

"공공영역 성역화 끝까지 책임 묻겠다"

비구니회 4월 18일 입장문

서울시내 공공영역의 특정종교 성역화 지속으로 한국불교사와 우리나라 역사가 왜곡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가 입장문을 발표하고 서울시에 공공영역 회복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비구니회는 4월 18일 '광화문광장의 정체성과 공공영역의 회복을 촉구하는 전국비구니회의 입장문'을 통해 "모든 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이자 대한민국의 상징적 공간인 광화문광장이 천주교 신자의 순교를 알리는 현판으로 도배되고 있다"고 개탄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광화문광장을 천주교 순례지로 만든 것에 대한 분명한 입장표명과 특정 종교의 설치물 철거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는 천주교와 지자체가 연대 국민 혈세와 공적자금이 투입돼 가능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윤겸 수습기자

불교계, 화마 휩쓴 강릉에 자비 손길

조계종, 이재민에 2억 원 지원
비구니회, 인월사에 물품 전해

4월 11일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도 강릉지역에 불교계가 잇따라 성금을 기탁하며 온정의 손길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강릉 인월사 복구를 위한 모연에 십시일반 마음이 모아지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4월 20일, 산불피해 이재민들이 임시 거주하고 있는 강릉 아이스아레나를 방문,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자비나눔 기금 2억 원을 전달했다. 이어 일주문을 제외한 모든 전각이 전소되는 막대한 피해를 입은 인월사에 들러 피해현황을 점검한 진우 스님은 주지 재범 스님을 위로하고 "도량이 여법하게 복원될 수 있도록 종단이 한뜻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월사 소실 직후, 발 빠르게 성금모연을 실시한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는 4월 14일 인월사를 찾아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성금모연을 통한 지속적인 후원을 약속했다. 주지 재범 스님과 신도들을 위로한 본각 스님은 "주지스님과 신도들이 인월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원력을 갖고 힘을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전국비구니회도 인월사 복구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월정사와 강릉사암연합회는 4월 17일 인월사를 방문, 교구희망기금 3000만 원을 전달했다.

강릉 현덕사(주지 현종)는 4월 15일 인월사에 피해복구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기금은 신도들이 십시일반 한 것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 현종 스님은 인월사 피해 현장을 돌아본 뒤 "불자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응원하고 있다. 빠른 복구로 인월사가 부처님 도량으로 다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조계종 제4교구본사 오대산 월정사(주지 정념)와 강릉사암연합회(회장 설암)도 4월 17일 인월사를 방문, 3000만 원을 전달하고 위로를 전했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인월사는 그동안 모범 수향도량으로 지역 불교계에 큰 역할을 해온 사찰인 만큼, 복원불사도 원만하게 진행될 것"이라면서 "도량 복원에 교구 전체가 한마음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주지 재범 스님은 "전국 각지 스님들과 불자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하다"면서 "잘 복구해 수행정진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천태종(총무원장 덕수)은 4월 20일 강릉산불 피해상황실을 방문, 김홍규 강릉시장에 긴급구호금 2500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또 산불 피해를 입은 삼개사 신도 신복녀, 신현주 불자에게 위로금 1000만 원을 전달하고 "천태종 신도 모두가 한마음으로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길 기도하고 있다"고 위로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 상진 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한국불교태고종
광주전남종무원

종도 일동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운천길 85-15 전화 062)375-1820 팩스 062)381-0944